

하천 복개와 하천 환경

정 동 양*

자연을 보호하고 함께 사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아름다운 산수화를 안방 깊숙한 곳에 걸어 두고 자연을 즐기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아름다운 정서에 위배 되는 졸졸 흐르는 개울가의 나무를 벌목하고 하천을 복개하는 무지한 일은 지양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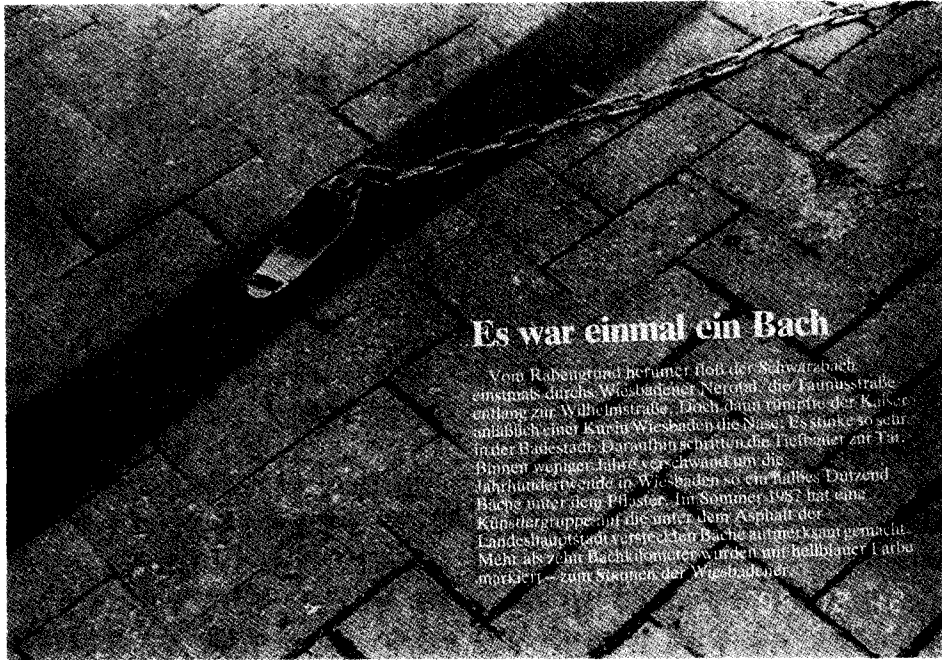
오늘날 도시인들은 숲한 하천이 복개공사로 인하여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무심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며 시민들은 이런 것을 반기는 듯 하다. 하천을 복개하면서 “사업”이라는 말까지 붙여 하천 복개를 미화하는 느낌마저 들게 하였다. 하천 복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곡선형 하천을 직선화 하고, 홍수 때 빨라진 유속 때문에 하상이나 하안의 침식이 심하게 일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로 마감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하천이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게 되고 악취까지 풍기며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발상이 용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하천을 두꺼운 콘크리트로 덮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자연의 하천은 콘크리트 “관”으로 변해 버린다. 그리고 그 위에 주택이나, 도로를 만들어서 대단한 사업을 하였다고 자랑하는 것은 “몇냥” 어치 안되는 지역 정치인이나 여기에 관계하는 기관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하천은 남의 것, 주인 없는 것으로 인식해 왔었다. 그렇지 않다, 하천은 지금 막 태어나려는 어린 생명들의 것이다. 그 주인들이 살아갈 자연을 잠깐 빌려 사

용하는 어른들은 이를 보호하고 가꾸어 넘겨줄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깊이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1세기 전에 실패한 하천 복개 공사:
“우리는 잘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자”라고 외친 지난 30년은 금방 지나가고 남은 것은 병든 주거 환경 속에 우뚝 서 있는 닭장같은 회색 콘크리트 아파트와 그 사이에 검은 아스팔트를 깔고 매연을 뿜어 내며 달리는 자동차 속의 각박한 현대인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국형이 아니며 선진국의 겉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거공간 개선에 역행되는 하천복개는 주민들의 정서를 앗아가는 우를 범하는 소행으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의 강 중에 우리 나라에 잘 알려진 두 개의 강이 있다. 경제 부흥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라인강과,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지역을 흐르는 다뉴브강이 있다. 이 두 강이 모두 독일에서 발원하고 이 나라를 통과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강이라고 할 수 있다. 강개발, 치수·이수라고 하면 2세기 전부터 실패와 성공의 다양한 경험을 겪은 바 있는 독일이 유럽에서 대표적이며, 강의 재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일 것이다. 이런 나라에도 하천 복개는 있었으며, 파리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21세기에 와서 선진 생산 기술은 금방금방 도입하여 제품 수출을 꾀하지만 하천 관리를 위한 분야에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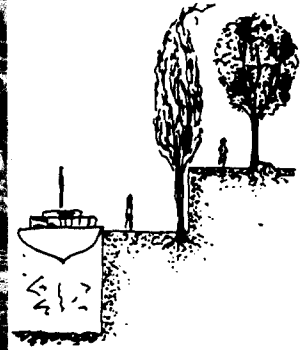
〈그림 1〉 지난 세기말에 중부 독일의 Wiesbaden시의 복개된 하천 위의 보행자 거리. 그림에 쓰여진 “여기에 까마득한 옛날에 하천이 있었다(Es war einmal ein Bach)”라는 문구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헷센, 환경청 제공)

서는 선진국의 약 2세기 전의 실패한 공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국의 엔지니어와 관계 당국의 묘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세기말의 어느 날 황제가 온천욕을 즐기러 Wiesbaden(중부독일, Frankfurt/M)에 왔을 때 그의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흑천(Schwarzbach)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 후에 이 개천은 맹목적인 토목인들에 의하여 복개되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요즈음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 1987년 여름에 예술인 단체에서 10km가 넘는 이 하천을 따라 물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흘러갔던 하천의 위치를 표시하고 쇠사슬에 목혀진 배를 가로등 기둥에 매워 두었다. 도로의 “물색 페인트 하천에 떠 있는 배”를 본 많은 시민들이 그 곳에 하천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으며 심한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사람들이 사라진 하천을 재현하는 일이 유럽 하천개발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며 그림 1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존하는 하천개발 : 그림 2는 에펠탑 아래의 세느강이다. 이 강변에 교통이 복잡하여 복개하였고 가정하면 오늘날 불란서가 세계의 관광국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불란서의 토목 엔지니어들은 세느강변을 따라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교통 해소, 소음 방지, 공해 방지, 도시 환경 보호를 이루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불란서인의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세느강에는 많은 유람선이 보인다. 파리를 지나가는 세느강의 하안은 수직 옹벽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토목 엔지니어들이 수직 옹벽을 따라 조림하는 것은 잊지 않았다. 이것은 보기 싫은 옹벽을 감추기도 하고 도시의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상점의 진열장을 철마다 바꾸듯이, 철 따라 찾아오는 세계의 관



세느강의 단면:수직 하안을 따라 포플러가 조림됨.

〈그림 2〉 에펠탑에서 내려다본 세느강은 둔치에 나무가 평풍처럼 조림되어 철마다 색다른 풍경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며 도시공간미를 더하고 있다.



〈그림 3〉 강변에 발달한 Böhme 왕국의 정서가 어린 Prach의 중심지의 Charles Bridge 옆에 위치한 하천의 옛 물레방아는 시민과 관광객의 시선을 끈다.



(위)

(아래)

〈그림 4〉 복개된 청계천, 답교제라는 민속행사가 있었던 수표교는 사라지고 그 위에 홍물의 고가도로-교각이 역사의 심장에 못박아 버렸다 (위), 1441년 (세종 23)에 건설된 이 다리는 1959년 장충당공원 입구에 옮겨졌다. 옛날 그 수표교 자리에 이상하게도 “붕대를 감은 건널목”이 설치되어 있다.

광객을 맞이하는 세느강변의 나무가 계절 따라 갈아 입는 “옷” 때문에 파리가 색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3은 동구의 진주라고 부르는 Prach인데 도시 중앙의 유명한 Charles-교 옆에 있는 셋강에 물레방아는 아직도 그 자리에 돌아가고 있다.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이러한 물레방아간은 주민들의 일이 서린 곳이므로 방문객의 발을 멈추게 하고 그때 그 시절의 문화를 되 새기게 된다. 이러한 옛 모습을 이념의 갈등을 초월해 가며 보존하는 것이 결국 역사를 이어가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수표교를 원위치에 : 필자가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느낀 것은 세계의 관광객들이 오래된 다리, 탑, 건물 등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점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래된 다리와 물레방아이었다. 유럽인들이

구조물들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이미 아시아 여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리 나라의 고대 소형 아치교를 그들은 규모를 확대하여 대형화한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은 개발을 한답시고 하천을 복개하며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지는 않았다. 그림 4는 555년 전에 건설하였던 수표교가 위치한 곳이다. 국민의 정서에 흉악한 콘크리트 교각을 박는 무자비한 개발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제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 경복궁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 과거의 하천개발에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를 옮겨 놓고 복개하여 도로를 만드는 관계자들은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토부분을 녹색 페인트로 칠하는 “슬기”를 자아내게 하였으며, 결국 독일 매스컴의 화재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국의 도



〈그림 5〉 밀이 자라는 과정에 필요한 것은 물, 공기, 흙(영양분), 빛(온도) 등이다. 지렁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자라며 식생은 서로 교체 작용을 하며 균형을 이룬다. 하천 주변의 왕성한 생태계는 하천 복개와 함께 완전히 사라진다.

시 주변에 남아 있는 둔치는 주차장으로 변화하여 극심한 환경오염을 초래 하고, 하천이 자정력을 상실하여 썩어 가며, 바다에 적조 현상이 나타나고 강물이 녹색으로 변하여도 세계화를 외치는 당국은 오히려 하상주차장을 허가해주고 있다. 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옆의 전통 차집에서 차를 마시게 할 수 있는 하천 개발을 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잠시 참고 견디자고 할때 신바람이 날 것이다.

하천복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 파괴, 지하수 고갈 촉진, 자정력 상실, 홍수 때 급격한 배수로 인한 하류의 범람, 강·바다 오염 유발, 주거 환경 파괴 등이 하천복개를 하게되면 발생하는 나쁜 점들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그림 5는 밀의 싹이 자라는 초기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씨앗이 움트고 자라기 위하여 깨끗한 물, 공기, 흙(영양분), 빛(온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상식이다. 요즈음 이야기하는 공해와 관계되는 가장 기초적인 변수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흙 속에는 여러 가지 미생

물이 서식하며, 토질을 기름지게하고 산소 공급이 용이하도록 지렁이를 비롯하여 여러 저급 동물이 땅을 부풀게 한다. 식물 줄기나 뿌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땅속에 공급된다. 하천이 복개되면 모든 것의 으뜸인 빛이 차단되고 하천 하상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게 된다. 생태계 즉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어지며 물론 주민의 육체적 건강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나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는 추산 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맺는 말: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주거 환경은 풍요로와져야 하며, 하천 주변의 유물과 유적은 보존하여 차세대를 위하여 넘겨 줄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보람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왜 뛰고 있을까? 좀 더 질 좋은 삶을 누리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지난 30여년 동안 남용하고 파괴된 하천환경을 복원하겠다는 신념아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